

영화 속 정신증상 분석이 정신질환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보적 고찰 - 일개 한의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김경수, 배진수*, 정서윤*, 정현우[†], 김경옥*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가정의학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Basic Study on Effects of Psychological Symptom Analysis in a Movie on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Disease – Focusing on Students at a Korean Medical University

Kyung-Soo Kim, Jin-soo Bae*, Seo-yun Jeong*, Hyeonu Jeong[†], Kyeong-ok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Gwangju Oriental Hospital, Departments of *Neuropsychiatry and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26, 2021

Revised: December 16, 2021

Accepted: December 27, 2021

Correspondence to

Kyeong-ok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ongshin University Gwangju
Oriental Hospital, 141 Wolsan-ro,
Nam-gu, Gwangju, Korea.
Tel: +82-62-350-7206
Fax: +82-62-350-7141
E-mail: avecinok@hanmail.net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o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analyzing movies, including mental symptoms, according to a certain method, might affect the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disorders.

Methods: Forty-four oriental medicine students who had completed Korean medicine neuropsychiatric science were required to submit reports on episode analysis, psychiatric personal history investigation, diagnostic criteria, and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psychiatric diseases after watching a movie, including psychiatric symptoms. After submitting the report, a questionnaire related to understanding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movie was asked to be filled out. Demographic survey, frequency analysis, and response sample t-test were performed based on 42 questionnaires.

Results: Results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number of movies watched was three. 2. Psychiatric disorders and psychiatric symptoms, diagnostic criteria, psychiatric personal investig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psychiatric diseases all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3. A separate process might be need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personal strength investigation and oriental medicine connection.

Conclusions: Movie analysis, including individual mental symptoms, could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disorders in psychiatric symptoms, diagnostic criteria, and psychiatric personal investigation, but some students might need feedback.

Key Words: Movie analysis, Psychiatric symptoms, Diagnostic criteria, Psychiatric personal investigation,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psychiatric diseases.

I. 서론

영화(映畵)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기록한 동영상을 같이 기록한 음성과 함께 편집하여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끔 꾸며서 만든 영상물이다¹⁾. 초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영어의 모션픽쳐(motion picture)를 직역하여 ‘활동사진’이라고 하였으며, 그 밖에 무비(movie)·시네마(cinema)·필름(film) 등으로도 불린다²⁾.

최근에는 영화의학교육(Cinemameducation)이라 하여 주로 임상실습과 질환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는 보건 의료 교육 분야에서 특성화된 도구로서의 영화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²⁾.

영화는 현실 속 생활과 유사한 다양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습시 접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임상심리사나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난 후 그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³⁾나 간접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상 경험⁴⁻⁶⁾ 또는 학습의 효과^{2,7,8)}의 확인에 대한 것들이 있으며, 보건의료 계열에서는 질환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⁹⁾ 또는 정신질환의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¹⁰⁻¹²⁾가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⁸⁾가 보고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교육은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 증상, 경과, 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과 특정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¹³⁾. 교육방법으로는 강의 방식을 흔히 사용하며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매체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영상매체 중에서 영화는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우수한 자료이다¹⁴⁾.

영화 속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모호하거나 과장되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에서는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동기에 초점을 맞춰 왔다¹⁵⁾. 이런 점에서 영화 속 정신증상에 대한 분석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찰 및 대리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화 속 정신증상에 대한 분석을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이런 분석적 학습이 정신질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얻은 지견을 보고하며, 향후 영화자료 활용 수업의 적절한 활용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2020년도 한방신경정신과학교육 수업을 수강한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3주간의 기간동안 정신질환을 포함한 영화 중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관람 후 정신증상과 관련된 요소-줄거리, 에피소드 분석,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 질환에 대한 고찰 및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학기말에 강의 평가에 관련 설문을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무응답항목이 있는 등 반응이 불성실한 2명을 제외한 42명(남: 24, 여: 18)을 대상으로 분석 전후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 ○○한방병원 IRB의 심의면제 승인(DSGOH_E_2021_002)을 받은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가정의학과 교수와 병리학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보고서는 영화 속 정신증상을 정신 질환으로 진단하고 그 질환과 관련된 한의학적 증후에 대해 조사할 목적으로 부여되었다. 보고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줄거리는 500자 이내로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영화 내용과 내재된 정신질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피소드 분석은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시간과 내용, 관련된 진단기준을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정신 질환의 진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는 《영화와 심리학》¹⁶⁾에서 소개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과 순서는 한방신경정신과학¹⁷⁾에서 제시한 병력조사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와의 면담 시 해야 할 것을 인지시킴으로써 증상에서 질환의 진단과 연결할 수 있을 것

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질환과 한의학적 연관성 고찰을 통해 적절한 한의학적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영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과 보고서 제출 후의 정신 질환과 증상, 진단기준, 정신과적 개인력 작성 및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가 없어 가정의학과 교수와 병리학 교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영화를 본 횟수를 적어주세요”, “관련 질환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증상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로 이해도에 대한 대답은 Numeric rating scale (NRS)로 변형하여 0에서 10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답하도록 하여 이해도 변화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dow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화 관람 횟수와 이해도는 빈도분석을, 이해도의 변화

는 동일한 대상자의 전후 이해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0.01에서 차이를 평가하였다.

III. 결과

1. 인적사항

전체 42명의 그룹에 따른 성별과 나이는 Table 1과 같다. 남자는 24명(57.1%), 여자 18명(42.9%)로 총 42명이다. 27세 미만이 32명(76.2%), 27~30세와 31세 이상이 각각 5명(11.9%)으로 나타났다.

2. 영화 시청 횟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영화를 본 횟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38 ± 1.41 이며, 그 분포는 Table 2와 같다.

1~2회는 11명(26.2%)으로 남자는 7명(16.7%), 여자는 4명(9.5%)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9명(21.4%), 27세 이상에서는 2명(4.8%)였다. 3회는 14명(33.3%)로 남자와 여자 모두 각 7명(16.7%)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9명(21.4%), 27세 이상에서는 5명(11.9%)였다. 4회는 8명(19.0%)로 남자는 6명(14.3%), 여자는 2명(4.8%)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7명(16.7%), 27세 이상에서는 1명(2.4%)였다. 5회 이상은 9명(21.4%)로 남자는 4명(9.5%), 여자는 5명(11.9%)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7명(16.7%), 27세 이상은 2명(4.8%)이었다.

3. 이해도의 변화

정신과 질환 및 증상, 진단기준, 정신과적 개인력조사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ge			Total
	Under 27	27~30	Over 30	
Male	19 (45.2%)	2 (4.8%)	3 (7.1%)	24 (57.1%)
Female	13 (31.0%)	3 (7.1%)	2 (4.8%)	18 (42.9%)
Total	32 (76.2%)	5 (11.9%)	5 (11.9%)	42 (100%)

Table 2.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Watching Movie

	The Number of watching movie				Total
	1~2	3	4	5~	
Sex					
Male	7 (16.7%)	7 (16.7%)	6 (14.3%)	4 (9.5%)	24 (57.1%)
Female	4 (9.5%)	7 (16.7%)	2 (4.8%)	5 (11.9%)	18 (42.9%)
Total	11 (26.2%)	14 (33.3%)	8 (19.0%)	9 (21.4%)	42 (100%)
Age					
<27	9 (21.4%)	9 (21.4%)	7 (16.7%)	7 (16.7%)	32 (76.2%)
27~30	1 (2.4%)	3 (7.1%)	0 (0.0%)	1 (2.4%)	5 (11.9%)
>31	1 (2.4%)	2 (4.8%)	1 (2.4%)	1 (2.4%)	5 (11.9%)
Total	11 (26.2%)	14 (33.3%)	8 (19.0%)	9 (21.4%)	42 (100%)

대한 이해도의 변화와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Table 3,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 질환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30을 중심으로 10에서 6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60과 70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며, 평균의 변화는 30.23 ± 13.12 에서 75.71 ± 10.63 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증상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30을 중심으로 10에서 7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70,80,90에 몰려있으며, 평균의 변화는 32.86 ± 14.02 에서 76.67 ± 10.04 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진단기준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30을 중심으로 10에서 60까지 낮은 이해도로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70을 기준으로 50에서 90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2

명은 30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의 변화는 27.62 ± 15.11 에서 68.57 ± 15.56 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정신과적 개인력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10~30에 대부분 분포하고, 일부 40에서 6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50과 60을 중심으로 50에서 100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의 변화는 28.10 ± 14.18 에서 73.10 ± 13.70 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정신 질환의 한의학적 연관성에서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 10과 30에 주로 있으며 7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60과 70에 주로 있으며 10에서 90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평균의 변화는 영화 관람 전에는 26.19 ± 14.13 에서 관람 후에는 61.19 ± 17.00 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Table 3. Frequency of Understanding

Degree of understanding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um
Disease											
Before	5	9	17	4	5	2					42
After					1	4	17	11	8	1	
Symptom											
Before	4	7	16	7	5	2	1				42
After					1	3	15	13	10		
Criteria for diagnosis											
Before	11	9	10	5	5	2					42
After			2		8	3	14	9	6		
Personal psychiatric research											
Before	8	11	12	5	5	0	1				42
After			1		3	5	14	11	7	1	
Korean medicine connection											
Before	12	7	14	5	3		1				42
After	1	1	1	3	6	11	10	8	1		

Table 4. Results of Paired t-test

Degree of understanding	Difference in response				t-value	df	p-value
	Mean ± SD	Standard error	95% difference in confidence				
			Lower limit	Higher limit			
Disease	-45.48 ± 14.35	2.21	-49.95	-41.01	-20.54	41	0.000**
Symptom	-43.81 ± 14.34	2.18	-48.21	-39.41	-20.09	41	0.000**
Criteria for diagnosis	-40.95 ± 18.05	2.79	-46.58	-35.33	-14.70	41	0.000**
Personal Psychiatric research	-45.00 ± 15.34	2.38	-49.78	-40.22	-19.01	41	0.000**
Korean medicine connection	-35.00 ± 19.66	3.03	-41.13	-28.87	-11.54	41	0.000**

**p < 0.01.

IV. 고찰

최근 영화자료 관람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백¹⁸⁾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활동을 가능하게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화의 효율성이 제시되었다.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김³⁾은 기독교 이해 수업에 있어 청년과 기성세대간의 소통적 관점과 전달력이나 설득력에 있어 기독교 교리의 교육에 있어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재고하는 방법으로써 김과 서⁴⁾의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정 등⁵⁾의 정신질환교육이 고등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⁶⁾의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상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습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영화 자료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었으며, 박과 양²⁾의 영화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질환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임⁸⁾의 감성지능 및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 임⁹⁾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성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만족도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건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건의료 계열에서는 질환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과 홍⁹⁾은 영화를 활용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이 자기수용, 대인관계,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상처받은 중년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정신질환의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는 3편이 있었다. 박 등¹⁰⁾의 영화를 활용한 수업 경험; HIV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는 HIV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보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유와 김¹¹⁾은 영화에 나타난 소아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에서 영화가 소아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에 대해 무의식 속의 전형적 이미지 각인의 가능성과 좀더 풍부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박 등¹²⁾은 한국 영화에 표현된 응급 처치의 적절성 평

가에서 “많은 한국 영화에서 보이는 응급 처치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등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의학 지식을 습득할 위험이 있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양한 임상실습과 질환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교육분야에서도 영화(cinema)와 의학교육(medical education)의 합성어로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이라 하여 영화 교육을 특성화하여 이용한다. Alexander (1995)가 처음 언급한 이 용어는 ‘의학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⁹⁾.

정신질환과 관련된 영화를 활용하는 수업은 간호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²⁰⁾는 먼저 학습목표를 정확히 하여 필요한 영화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전체를 볼 것인지 클립이나 부분적인 장면을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과 서⁴⁾는 정신질환교육을 영화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영화는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우수한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영화자료 활용 수업을 한방신경정신과학 실습에도 적용시켜서 활용의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방신경정신과학은 학부과정에 임상실습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은 실습 환경과 한정적인 환자 등의 제약으로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루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성을 검증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 평가시 성과 확인을 위해 작성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질환관련 내용이 포함된 영화 한편을 선택하고 전편을 관람 후 관련 질환에 대한 분석 전후의 이해도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매우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과적 증상이나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같이 볼 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정신질환은 매우 어렵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관람 후에는 정실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대부분 40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이해도와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 역시 4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환의 진단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관람 전에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관람 후에는 70을 기준으로 좌우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에 대한 이해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였다. 빈도분석 결과 30이하가 30명을 보이고 있어 처음 접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관람 후에는 60이상이 34명으로 이해도가 상승하였는데,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를 작성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람 전 정신질환을 증상에 따라 한의학적 연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빈도분석 결과 34명의 학생이 30이하에 몰려있었고, 관람 후에는 35명의 학생이 50에서 80에 분포하고 있어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6명의 학생이 40 이하에 있어 개별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영화를 평균 3회 정도 관람하면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에피소드를 찾고, 그 에피소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정신 증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병인과 병리, 진단기준에 대해 찾아보게 되어 질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를 통해 실제 환자와의 면담하고 난 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영화 관람을 통해 가장 이해도가 증가한 부분은 정신 질환의 이해이며, 한의학적 연관성은 이중 가장 적은 이해도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한의학 증후와 연결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람 외에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영화를 이용한 수업은 한편의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속에 내용을 다같이 토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편의 영화를 혼자 3회 정도 보면서 스스로 관련 증상을 찾고 분석하면서 정신질환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영화 자료를 가지고 이론 강의에서 정신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활용되고, 실습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립되며, 한의학적 증후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의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년을 마칠 때 영화 관람 전후의 이

해도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영화 관람 횟수는 평균 3회정도로 나타났다.
2.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증상, 진단기준,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의 이해도, 질환의 한의학적 연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3.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와 한의학적 연관성에서 낮은 이해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증상과 진단기준이 일반 질환과 다르며, 경험이 필요하므로, 향후 영화분석을 이용한 교육방법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Tomas S, Vivian C. S(Author), Joo CK(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Film, Geo-rm, 2002:15.
2. Park YH, Yang YA. The Effect of Instruction using Movie on Diseases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Aged-Friendly Health Policy Association. 2012;4(1):83-8.
3. KIM MI. An Introduction to the Practical ways of teaching Christianity Using Cinema.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015;29:83-116.
4. Kim YN, Seo JM. Effects of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o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toward Mental Illnes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0;19(4):382-90.
5. Jung KH, Sim DS, Lee CS. The Effect of Mental Illness education 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999;8(2):355-68.
6. Kim KH.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recognition and eliminate prejudices of mental illness. Korea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2011;2011(4):1-120.
7. Lim AR. A Study on Interactive Cinemapsychotherapy Class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21(6):109-55.
8. Lim AR. A Study on Effectiveness of Onlin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Due to COVID-19: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22(2):57-66.
9. Kim SO, Hong SU. Effects of inner child healing programs using movies on self-accept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rital adaptation. Proceedings of the KHMA Conference. 2020:409.
10. Park WB, Jang EY, Seo MS, Rhyo SR, Kang HW, Myung SJ, Kim NJ, Oh MD, Sjin HY, Shin JS. Experience of Teaching

- a Class with a Film: Cognitive Changes with Regard to HIV,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1;23(1): 27-32.
11. Kim JW, Yoo HJ. Child and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s expressed in movi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02;13(1): 30-7.
 12. Park IC, Choa MH, Kim SO. Appropriateness of Emergency Care Depicted in Korean Mov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2002;13(4):466-9.
 13. Goldman, C. R. Toward a Definition of Psychoeducation. Hospital & Community Psychiatry. 1988;39:666-8.
 14. Wedding D. & Boyd M. A. Movie and mental illness: using films to understand psychopathology (S. H. Beack, D., W. Cho, Y. O. Han, Trans.). St. Louis: McGraw Hill Colle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15. Kim SH. Psychiatry and the cinema, Korea university press. 2020:8.
 16. Kwak HW, Jang MS, Goo BH, Bae DS. Movies and Mental Illness using films to understand psychopathology, Hakjisa. 2016;46-9.
 17. The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al schools in nation. The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ine 3rd Edition. Seoul. Jipmoondang. 2016:124-6.
 18. Baek KS. My fair Lady: It's utility in teaching the variations in English, STEM. 2010;10(1):119-45.
 19. Alexander, M. Cinemeducation: An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multi-cultural diversity in medicine. Ann Behav Sci Med Educ. 1995;2:23-8.
 20. Oh JA.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 for Nursing Education: Cinem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2):194-201.